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보건복지부, 13일 의대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 논의
제주, 지난해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시행
전문의 23명 확보… 향후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 주목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제주지역 의료 인력 수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만큼, 향후 두 제도가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안에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 인원 가운데 2026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선발 제도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 국가 지원을 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며, 관련 결정은 내달 3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36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제주지역은 이미 별도의 방식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 의사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는 23명이다. 병원별로는 서귀포의료원 2명, 제주대병원 9명, 중앙병원 3명, 한국병원 3명, 한라병원 6명이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

건을 지원해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와는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 선발 방안이 본격화될 경우 제주지역 의료 인력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해 "주체 분석에는 흡연이 있다"며 "연간 근무 시간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할 경우 2040년에는 최대 1만8000명에 가까운 의사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제주 '용천수 인증마을' 생긴다

도, 2곳 선정 3년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주도로 용천수 보전 활동에 나서는 마을 2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천수 인증 마을로 선정되면 올해 5400만원 등 3년 간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용천수 인증 마을 첫해는 용천수 주변 환경정비와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 대상 용천수 관리 교육 등을

통해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두 번째 해는 용천수 관광 자원화와 마을 축제 등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 해는 마을이 용천수 특화사업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마을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청 물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시화

제주대학교병원·제주한라병원 올해 지정 공모 참여

제주대병원 간담회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선언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의료기관의 의료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 중심에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모에 나서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개원 25주년을 맞는 제주대병원은 14일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당일항암센터와 이식센터 개소를 비롯해 권역모자의료센터 강화, 뇌혈관 하이브리드 수술실 신설, 이식센터 개소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에 나선다. 이어 8~11월 지정평가를 거쳐 연내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제주에선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복지부의 최근 용역 결과, 이번 6기 지정부터 제주권역이 서울권역

에서 분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분주히 돌아가는 스프링클러 14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마늘밭에서 스프링클러가 분주히 돌아가며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평준화 일반고 합격·배정 결과 공개

정원 외 포함 총 2917명 선발… 264명 추가 모집

도교육청, 14~15일 원서 접수·16일 합격자 발표

2026학년도 제주지역 평준화 일반 고 합격자와 학교 배정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일부 학교에서 정원이 미달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총 264명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에 나

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과 도내 각 중학교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합격자 및 학교 배정 결

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준화 일반고 모집 정원은 2880명으로, 이 가운데 2864명이 합격해 16명이 미달됐다. 정원 외 합격자 53명을 포함하면 총 2917명이 선발됐다.

학교 배정은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 배정 원칙에 따라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 배정 결과 제1지망 배정 비율은 77.41%로 가장 높았고, 제2지망 13.27%,

제3지망 4.94%, 제4지망 2.23%, 제5·6지망 2.16% 순으로 나타났다.

합격 및 학교 배정 통지서는 출신 중학교를 통해 교부된다. 합격생들은 배정된 고등학교별 예비소집에 참석해 입학 등록 절차와 향후 학사 일정, 교복 구입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정원 미달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 실시를 확정했다. 추가 모집 대상은 평준화 일반고 16명을 포함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78명,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64명, 한국뷰티고등학교 16명, 중문고등학교 11명, 성산고등학교 53명, 대정고등학교 12명, 대정여자고등학교 2명, 삼성여자고등학교 5명, 표선고등학교 7명 등 총 264명이다.

추가 모집 원서 접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합격자는 16일 발표된다. 평준화 일반고는 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선발이 이뤄지고, 학교장 전형교는 각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지원자는 해당 학교 누리집의 모집 공고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김 부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기점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도내 의료 전반의 보완·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제주한라병원이 종종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수부(손, 팔 등 부위) 전문의료가 부족한 점과 제주대병원이 갖고 있는 권역심혈관 중·흉부 심장외과가 부재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른 병원별 장·단점을 보완하고 전담병원에서의 인력 과부하 및 의료진 번아웃, 전문인력 부족·분산·중복 등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진 축 급

해병 준장

"운동장을 함께 뛰놀던 친구가
이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별 하나에 담긴 노력과 헌신에
화북초 58회가 한마음으로
축하와 존경을 전합니다."



현우식

화북초등학교 58회 친구들 일동

진 축 급

해병 준장



현우식

(父: 현창돈 차남)
해병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주현씨 승적공파 친족회
회장 현영호 외 친족 일동

수 축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임병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브랜드감귤대학 8기
회장 김영색 외 회원 일동